환마 창의 영웅 쿠흘린

클랜/리추얼서몬(창영웅의 축도)

원전: 아일랜드

클래스: 8

속성: 충격

본명은 세탄타

태양신 루그와 요정족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영웅 마술사왕 콩코바르의 여동생 이자 위대한 책사인 데일드의 양자로 키워진 요정의 전사 보통의 창이나 무기로는 튕겨나가기만 하는 육체에 붉은 기를 뿜어내며 진공을 조종하는 위력의 소유자로 바다괴물의 뼈로 만들어진 창이자 사기인 게이볼크를 들고서는 무적으로 싸운다 하지만 동시에 게이볼크는 관통할수 있는 힘을 가지기에 자신에게 큰 약점중 하나이다

인간체는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소년이나

쿠흘린이라는 별명도 실수였지만 자신을 가로막던 인간대장장이 쿨란의 사냥개를 맨손으로 죽이는 바람에 속죄하기 위해 경비를 대신 맡으면서 붙게 된 별명으로 아일랜드어로 쿨란의 사냥개라는 뜻

요정여왕 메이브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의형제와인 인간용사를 자기손으로 죽였던 때도 있었다

신성랭크와 기아스: 태양신과 요정의 아들답게 신성함을 가지고 어빌리티클래스가 높다는 것이 특징 고대부터 브리튼과 켈트쪽의 모든 생물에게 약정되는 저주의자 약정의 증표인 마법 기아스때문에 핫도그 또는 콘도그를 넘어 개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찔러죽이는 창(게이볼크): 그림자족의 여신 스카하자가 해수 쿠르드의 뼈를 모아 만든 여러 개의 무기중 하나로 검붉은 창날에는 찌른 상대의 내부에 연속으로 저주의 화살을 연속으로 난사시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